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
-관광개발분야-

윤양수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지자체를 책임질 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따라 민선 4기의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새로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쾌적한 삶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새롭게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는 관광개발부문의 발전이다.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지와 같은 여가공간 개발은 한편으로는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산업여건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의 유일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그동안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관광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관광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공급중심의 개발, 해외관광의 확대, 지역간 경쟁의 심화, 관광개발의 어려움, 관광소프트웨어의 부족에 따른 관광지 매력의 저하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관광의 중요성은 첨단산업의 확대와 함께 모든 지자체의 발전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광산업이 IT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과 더불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 국민소득 증대,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경제적인 여가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있어서 관광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은 물론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새로운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지역이나 관광개발은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충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충남지역은 대규모 관광시장인 수도권에 바로 인접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로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지역보다 오히려 양호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신도청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어 관광환경 여건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충남으로서는 제조업과 같은 산업발전에 대한 노력과 함께 관광분야 발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충남발전을 위한 도정의 과제 중 관광부문의 발전을 위한 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광부문의 여건과 변화전망, 관광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시책 및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광환경여건과 변화전망

소득증대, 인구증가,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주5일 근무제의 도입, 국민경제여건 등 일반 경제사회적여건은 관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여건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충남의 관광잠재력을 제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위협요인으로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모든 지역에 해당이 되며 충남지역으로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관광레저산업의 중요성 증대와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성장

관광산업은 대규모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2014년까지 관광관련 산업이 세계 GDP의 10.9%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자의 8.6%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객 수는 1995년 5.64억 명에서 2010년 약 10억 명, 2020년에는 15.6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TO).

이러한 세계 관광시장의 확대와 함께 동북아 지역은 세계 주요 경제블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단계에 진입하여 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1995년 81백만 명에서 2010년 약 2억 명,

2020년에는 약 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 각 국은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내 국제관광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국제관광객(outbound)은 1995년 1.5백만 명에서 2004년 28.9백만 명, 2010년 56.0백만 명, 2020년에는 100.0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중 5%만 우리나라에 유치하여도 5.0백만 명이 되는 것이다.

2. 국민관광수요 증대와 관광레저형태의 다변화

국내관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편해져 전국의 1일 관광이 가능해 졌으며,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관광횟수와 장거리 숙박관광이 증가하는 등 국민관광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이동총량(국내여행참가일수)은 1999년 272.6백만 일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388.9백만 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2년과 숙박관광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 참가자수나 참가횟수 총량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이는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행태변화가 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관광행태는 과거의 관람중심의 획일적 대중관광에서 참여와 체험중심의 다양한 대안관광으로 관광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환경중심의 패러다임 확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자유시간과 숙박여행 증가 등의 요인으로 획일적인 대중관광 보다 생태, 역사·문화, 모험, 휴양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광활동의 보편화와 국제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자연자원 중심의 단순한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관광시설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관광의 대명사가 되었던 국립공원 관광객이 1997년 36.4백만 명에서 2004년 25.8백만 명으로 70%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해외관광의 급속한 증가는 오늘날의 이러한 관광행태 변화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잠재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늘의 관광중심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3. 관광거점 우위선점을 위한 국가간, 지역간, 지역내 경쟁심화

중국은 세계 1위(02년 5위)의 관광입국 달성, 일본의 2010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목표에서 보듯이 동북아 각국은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여 경쟁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모든 지자체는 관광개발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 관광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서로가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3년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신청 448건 중 문화관광분야가 233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선정된 6개의 기업도시 중 3개가 관광레저형이며, 개발촉진지구계획이나 각종 지역개발계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광부문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심한 것임을 잘 대변하고 있다.

관광은 타 사업과는 달리 지역에서 생산하여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품의 가격과 질에서 경쟁을 하듯이 관광산업이 성장하려면 우선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호에 맞는 상품과 상품의 질과 가격에 대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4. 접근성 개선과 기업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신도청 등 새로운 관광여건 조성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기존에 소외되었던 서해안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켜 주었다. 특히 대규모 시장인 수도권에 가까운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의 최대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의 개선과 서해안의 다양한 먹거리와 축제는 서해안지역의 관광목적지 분담율을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아직까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강원도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과 공주 · 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은 향후 충남지역의 관광수요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레저형도시의 조성은 부족한 충남지역의 관광거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은 신도시와 국내외 관심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방문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III.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1. 관광수요변화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과 산업으로서의 관광개발 추진

관광객 이동의 확대에 따른 급증하는 또는 잠재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충남지역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매력 있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광여가 수요변화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관광시장인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지정학적 입지와 해양, 문화자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먹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부문의 발전은 주민의 일상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복지차원에서의 접근과 산업으로서의 관광부문의 발전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많은 관광지는 당초의 목적은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개발이 되었으나 실제 단순한 지역의 여가공간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창달은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지역주민 복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특색 있는 지역문화는 지역관광의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객력 있는 관광거점 조성과 연계관광지 개발

서해안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집객력 있는 거점이 부족한 것과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약점이다.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광흡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집객력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대천, 안면도, 부여/공주의 백제문화유적지역 등이며, 향후 태안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청도 관광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발적인 시설중심의 개발보다는 한정된 지역과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을 선정하여 이들을 관광명소화하고 관광거점과 연계하여 관광거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지역으로 관광효과가 파급되어 지역발전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해양, 생태, 문화, 음식 등 지역성이 부각되는 전략관광상품의 개발

충남에는 SIT를 포함한 테마 또는 소규모의 관광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바다, 갯벌과 철새의 생태자원, 먹거리, 역사, 문화 등 지역별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하고 있다. 지역성이 부각되고 새로운 관광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충남의 특성자원을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발굴하여 전략관광자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러한 자원을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되 최소한의 시설 등의 설치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광루트를 설정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4.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태 · 녹색관광 등 대안관광이 부상됨에 따라 물리적인 대규모 개발은 제한이 되고 있으며, 토지확보도 어려워 관광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의 관광개발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광개발로 수려한 해양자원과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화하고 체험과 교육적인 관광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지구는 가급적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되, 선정된 대상지역에서는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관광은 성공하기 어렵다. 농어촌체험, 중저가 숙박시설, 먹거리, 지역특산품 마케팅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과 지연산업의 관광상품화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관광산업을 발전을 추진하여 실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5.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관광기반 조성

최근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관광목적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지역은 이러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의 하나이다. 이처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복합도시 · 신도청의 조성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충남의 광역교통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이와 연계된 서해안과 내륙의 지역간 교통체계 정비가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서해안의 해안일주도로 조성과 인근 도서와의 원활한 연결은 충남해안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해양관광은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를 탈피할 수 있도록 충남 서해안의 새로

운 이미지 발굴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충남의 이미지와 브랜드 등과 연계한 독특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은 역시 수도권과 부산지역이다. 관광은 자연자원이나 테마공원 같은 관광시설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목적시설은 아닐지라도 국내외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또는 지역이 있다면 큰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 신도청의 조성을 관광과 연계하거나 국제적인 기능 또는 전국적인 기능과 시설이 마련된다면 이 또한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방문 관광은 지역경제에 실제 큰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곳에서 자고, 먹고, 놀고, 물건을 사야 지역에 큰 관광효과가 있다.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한 머무르는 관광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6.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개발추진과 체계적 집행체계 구축

2004년 말 현재 전국에는 221개 관광지와 12개의 관광단지가 있으나 투자실적은 평균 15% 미만으로 계획대로 완전하게 조성된 관광(단)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발기간도 당초계획과는 달리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 관광지가 많다. 이렇게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개발기간이 늘어진 것은 투자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관광지 투자가 이렇게 부진하다면 지역개발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민자투자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관광수요와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주체의 과다한 시설개발계획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도 언제 조성이 될지 현재로서는 단기간내 조성은 어려우며, 충남의 다수의 온천관광지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는 달리 주민복지차원에서 공공투자비만으로 추진된 일부 관광지는 거의 100%(예 : 천안 태조산관광지)가 완료된 상태이며 민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부 관광지의 추진실적이 좋은 사례가 있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가공간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관광지의 개발은 철저한 수요분석과 사업성 검토 하에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개발하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관광지의 선호는 변화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광지 선정과 체계적인 개발 및 집행체계의 구축과 관광객 행태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7.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단계적 개발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개발 목표를 보면 대부분 동북아의 관광거점 조성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이며, 서해안의 경우는 국제적 해양관광단지의 조성이다. 국내적으로도 관광기반을 갖추지 못한 실정에서 동북아의 관광거점 조성은 어렵다. 현재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관광목적지로서 5~6위로 구성비는 약 10% 정도이다. 관광개발을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막연한 목표를 버리고 표적시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주를 포함한 국제관광지로서의 개발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현실화된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관광정책과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여건상 계절적인 요인과 서해안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해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목표설정은 곤란하다. 다른 지역도 같은 생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미래 관광환경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충남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사업

1. 전략적 문화관광거점 도시의 집중육성

충남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관광흡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집객력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가능한 지역은 현재 계획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청, 부여와 공주의 백제고도역사문화지역, 대천과 안면도의 해양휴양거점지역,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후보지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륙지역의 온천지대를 중심으로 한 온천테마 보양 · 체험관광도시의 개발도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 중 백제역사문화는 충남의 보물이다. 그러나 백제역사문화유적은 아직까지 충분한 관광흡인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유적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공주와 부여를 경주 이상 가는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현재 계획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문화도시로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안면도와 대천을 충남서해안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해양자원을 연계한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해안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한다.

2. 거점 연계형 관광명소 및 전략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다음은 충남지역에 산재한 해양, 생태, 문화, 음식 등 지역성이 부각되는 전략관광상품의 개발이다. 먼저 해안관광도로의 개설과 서해안의 주요 항구를 미항화하여 서해안의 자연경관과 항구를 테마화하도록 하고, 보령을 중심으로 서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도서의 관광자원화도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보령을 잇고 주변의 섬을 연결하는 서해안 선셋크루즈의 개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충남지역의 산재한 다양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이다.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관광욕구의 다변화·전문화에 부응하면서 계절성이 강한 자연자원의 비수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은 역사문화자원, 향토음식자원, 인물자원, 종교관련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찰문화체험, 역사인물탐방, 불교문화탐방, 천주교성지순례 등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다음은 생태·학습·교육·체험형 관광상품의 발굴이다. 갯벌, 철새도래지, 해안사구, 금강호 주변 등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교육적·관광적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농어촌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중요한 지역의 전략관광상품이다. 당진허브마을, 서산 이색체험마을 등을 농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강경 젓갈, 광천 토굴새우젓, 남당 대하, 금산 인삼 등 지역별로 특산품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판매장터를 중심으로 테마관광지구를 개발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화관광자원이나 체험형 관광상품은 단일 상품으로는 관광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과다한 시설개발은 억제하고 집합적인 연계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통연계체계 강화와 네트워크형 관광벨트와 관광코스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목적지와 관광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음으로는 접근하기 쉽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광활성화만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시설을 개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서해안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었고,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행정중시복합도시·신도청의 건설로 주변지역의 광역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충남의 광역교통망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광역교통체계의 건설보다는 관광거점과 이들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결, 소규모 관광지 연결도로의 정비, 그리고 내륙과 서해안의 접근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형 관광벨트와 관광코스 개발에 있어서는 서해안 · 역사문화 · 산악 · 금강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류 패키지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청주공항과 연계하며, 해안 · 내륙 · 금강 연계 테마관광도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현대 관광수요에 적합한 문화컨텐츠 상품의 제공

오늘날에 관광활동의 동향에 맞추어 가족 · 건강 · 체험관광형 웰빙관광상품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웰빙식단을 선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식품 재배 추진과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웰빙 음식축제의 개발은 지역의 거점식당가 또는 포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화 소재 원형컨텐츠 상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 · 읍급의 중소도시는 전통상가거리, 전통 및 근대 건축물 가로, 관아지구 등의 테마가로지구를 조성하여 도시형 관광산업 및 지역사회의 활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해양시대를 대비해서는 해양 · 항공레포츠형 위락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안면도 지역은 해양 수상스포츠, 해변 이벤트, 마리나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활용의 기능을 부여하여 21세기 서해안권의 관광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광지로 지속 개발하고, 중국 등 주변국가의 외래관광의 증가에 따른 국제적인 해상교통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크루즈 관광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충남의 대표이미지 확립과 홍보활동 강화와 시 · 군간 협력사업 추진

다음은 충남 관광이미지의 확립이다. 수많은 해수욕장,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다양한 먹거리, 공주와 부여의 백제고도문화, 온천, 갯벌, 철새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남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명소 또는 관광자원이 무엇인지, 충남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자원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별 이미지 또는 브랜드 정립과 함께 충남지역 전체를 나타내는 이미지 확립과 홍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관광은 마케팅이 좌우한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관광목적지로서 강원도, 경북, 전남 등에 이어 5~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서도 순위가 처진다. 이러한 결과는 고

속도로 개통에 따른 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의 홍보와 마케팅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름 계절적인 한계성을 탈피하고 연중 꾸준한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마켓팅이 필요하다. 홍보와 마켓팅에서는 지역별이 아닌 충남지역 전체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道 대표축제의 세계화와 메가이벤트의 정기 개최가 필요하다. 공주 · 부여 백제문화제, 금산인삼제,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제 등 충남의 4대 지역문화제의 세계화와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참여형 이벤트를 연계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인삼, 모시, 머드제품 등을 홍보하고, 교역의 장을 상설화하며, 지역의 CI 홍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접 시 · 군간 협력적 관광자원 및 관광코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질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특화개발을 유도하여 지역별 교류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광권역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지역균형발전 도모, 관광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화 도모, 권역 중심지 집중개발에 의한 투자효율성 도모, 자연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광개발 범위 설정을 시 · 군간 협력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시장과의 접근성과 자원성으로 매우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 신도청과 기업도시의 조성으로 관광환경 여건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부문의 노력은 지역발전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은 물론 지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새로운 관광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지역이나 관광개발은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국립공원의 예에서 보듯이 이제 단순한 경관자원의 개발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목적지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관광목적시설은 아닐지라도 국내외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또는 지역이 있다면 큰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관광수요변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과 주민복지 차원의 여가공간 개발과는 다른, 산업으로서의 관광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광역차원의 관광발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관광을 목표로 하는 선택과 집중

에 의한 집객력 있는 관광거점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관광개발은 철저한 수요분석과 사업성 검토 하에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개발하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양, 생태, 문화, 먹거리 등 지역성이 부각되는 전략관광 상품과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행태의 다변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